문제의식 자체가 문제다

(고전1:18~25)

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9.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0.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2.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문제의식 자체가 문제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발소에 가면, 지금도 이발소에서는 그런 면도칼을 사용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가죽 띠에다 면도칼을 쓱쓱 갈아서 면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이발소의 면도칼이 사실은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것이 요즘 우리가 볼 수 있는 안전면도기라고 이름 하는 모양으로 바뀌어서 가정에서 사용하게 된 내막이 있습니다.
한 샐러리맨이 아침마다 바쁜 시간에 면도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얼굴이 면도칼에 베이다 보니, 손님을 맞이할 때도 흉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불편해서 그야말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샐러리맨이 발명하게 된 면도기가 안전면도기이고, 그 샐러리맨의 이름이 그 유명한 질레트입니다.
요즘도 질레트면도기가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두 날 안전면도기, 세 날 안전면도기, 이렇게 면도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질레트라고 하는 샐러리맨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이처럼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창조적인 활동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안전면도기뿐만이 아니라 에디슨이 100개가 넘는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모든 게 다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왜 인간은 촛불을 켜고 호롱불을 켜야만 살 수 있을까?
좀 더 편하고 밝은 세상은 없을까? 하는 문제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전기 아닙니까?
아이작 뉴턴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물리적 원칙인 만유인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봐왔지만, 오직 뉴턴만이 그것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태초 이래 인간에게 숨겨져 왔던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학문분야에서뿐 아니라 일상적인 용품을 발명하는 일, 또 나아가서는 석가모니가 왕자로 태어나서 온갖 호사를 다 누리고 살 때,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봐왔습니다만, 유독 석가모니만이 사람이 태어나서 병들고 죽어가면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에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창시자가 되는 겁니다.
또한, 오늘 헬라인의 지혜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모든 헬라 사람들이 만물의 근원을 탐구합니다.
도대체 이 세상 만물은 어디서부터 생겨난 것이고, 그 속성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연구할 때에 유독 소크라테스만큼은 만물을 연구하고 있는 그 사람 자체에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의 최고로 손꼽힘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요.

자, 오늘 본문에 '세상의 지혜'라는 말이 나와요.
지혜의 사전적인 뜻이 뭡니까?
지혜라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 또 '사물을 이해하고 인지하는 능력' 이렇게 나와요.
설명이 더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혜라는 것은 문제의식을 본질적인 속성으로 갖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므로 지혜는 문제의식입니다.
문제의식이라는 것은 문제를 느끼고 정답을 찾으려는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가정에서 문제를 느낍니다, '아,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문제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벌써 답을 찾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는 것은 우둔함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창의적 능력이 소멸되었다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김빠진 콜라 같은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을 위해서 또,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낄 때 발전된 내일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문제의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지혜, 이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정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창의적으로 보이고, 대단해보이지만 사실은 멸망으로 향해 치닫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문제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답을 추구한다는 얘기고, 이게 바로 지혜인데, 내 삶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답을 추구하는 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 그들이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는 기차에 공을 던지면 탁 튕겨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답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십자가는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삶이 된다는 얘깁니다.
사도바울은 앞에서 고린도교회의 분파형성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파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왜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교회가 놓여 있는 교회 바깥의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고,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첫 번째 증상이 분파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고린도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영향력의 껍질을 벗겨서 그 본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분파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영향력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 그 세상의 영향력의 핵심부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유지하

고 견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으로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답을 추구하는 지혜자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교회는 반드시 분파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파형성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거꾸로 추적해 들어가는 겁니다.
'분파현상이 세상의 지배력 때문인데, 세상의 영향력의 근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혜를 추구하는 삶은 멸망으로 치닫는 길인데, 왜 그런 것인가 하면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 동안에 십자가는 미련해보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거리껴지는 것이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튕겨져 나온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못 받아들이니까 멸망으로 치닫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바울이 분파형성의 이유를 지혜를 추구하는 마음에서 찾습니다, 사고가 굉장히 근원적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아담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면서 아담에게 주어진 죄악 된 능력이 판단력입니다.
무엇이 좋다, 나쁘다, 내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판단력이 생길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문제의식이라는 거예요.
나쁘다, 부족하다,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 내가 이것을 이루면 좋다, 이것을 가지면 좋겠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문제의식의 표현이고 답을 추구해 들어가는 태도인데, 이것이 판단력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가정문제, 사업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내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한 정답이 내 안에 있다는 신념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이 잠재돼 있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갖는 겁니다.
답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봉쇄 되어있음을 아는 마음에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답을 내가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겠어요?
문제를 느낀다는 것은 답을 추구하려고 하는 힘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고, 답을 추구하려고 하는 힘이 나오는 이유는 그 속에 답은 어딘가 있고 찾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문제의식이 생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락의 유전죄의 결과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 이것은 정말 인간이 생각하기에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것으로 느껴지는 이 문제의식과

십자가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세상의 지혜를 멸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사건이 세상의 지혜를 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답을 추구하려는 마음 자체를 못박아버려야 되는 것이 십자가사건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자녀를 보면서 문제를 느낍니다, 그럴 때 그 문제의식을 십자가에 못박아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구원 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없이 사는 것,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의식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사건을 복음으로 우리한테 제시하신 이유는, 쉽게 말해 하나님의 문제의식의 표현이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지혜라는 게 뭡니까? 문제의식이에요.
문제의식이라는 것은 문제를 느끼고 답을 추구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근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문제의식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면서 느끼시는 하나님의 문제의식의 표현이고, 하나님이 답을 찾아내신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고,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하게 됩니다.
즉,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말은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느끼시는 하나님의 문제의식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답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우리 아이를 보고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문제를 느끼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를 보고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나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와 나를 동시에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문제의식은 우리 아이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느끼시는 문제의식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네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네 자녀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고 답을 찾으려는 그 마음이 문제다! 그러므로 너의 그 문제의식을 느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답이다!'
그러므로 내가 자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느낄 때 나와 자녀의 모든 관계를 해결해주는 정답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정답은 자녀에 대해서 문제를 느낄 때 문제를 느끼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한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손녀를 낳아 너무너무 예뻐하시고 하는 중에 생각지 않았던 며느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을 그 며느리 때문에 마음에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듣고 기도하고 하고 내린 결론이 '내가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며느리의 문제에 대처하는 유일한 정답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바로 그런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 내가 문제의식을 느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또 사업에 대해서 느끼는 나의 문제의식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업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문제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능력으로 내가 느끼는 문제의식을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것, 이게 유대인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헬라인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답이 있는 줄 알고 그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고, 유대인들은 성경에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고 답을 주셨으니까 만물의 근원 같은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단지 유대인들은 헬라인과는 다르게 '내게 지금 돈이 부족하다, 내게 지금 건강이 부족하다, 출세가 부족하다, 우리나라가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요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헬라인들은 만물의 근원을 탐구하고 연구하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동안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던 것이고(타락한 후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느끼는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고용한 것입니다.
둘 다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로 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받아들인 우리에게 있어서의 창의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제의식 없이 어떻게 창의성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뭔가 불편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나은 상태가 창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납니까?
아무런 창조성도 없다는 얘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창조성과 우리의 문제의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문제의식에서부터 창조를 하신 게 아니에요,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창조를 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의 속성 자체가 창조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신 사랑과 창조성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세상 창조에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창조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자보다 창조적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그러한 하나님의 문제의식과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지상의 삶으로 내려오시게끔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의식을 느낄 때 정답은 십자가입니다.
그 문제의식 자체를 죽이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자기가 느끼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자기의 문제의식 자체를 문제 삼는 겁니다.
'아, 내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구나, 이것은 내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신념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신념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진 악의 결과다'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나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느끼는 내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내 문제의식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김 집사가 문제야!' 김 집사가 문제라는 의식에서, 또 김 장로님이 생각하기를 '우리 박 목사님이 문제야!'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부터

목사파와 장로파로 갈라지는 겁니다.
담임목사가 생각하기를 원로목사님이 너무 권리를 주장하고 계셔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면서 담임목사파 원로목사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원로목사님이 너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담임목사님이 해야 될 일은, 원로목사님에 대해서 느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나 자신이 문제인 것을 알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은퇴하신 분이면 은퇴하신 분답게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자꾸 월권을 행사하십니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될 때 담임목사님이 해야 될 일은 반드시 그 잘못된 원로목사님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나를 하나님은 먼저 문제로 느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녀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고 있는 나, 며느리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더 먼저 문제로 느끼고 계시고, 십자가를 지금도 제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망각된 채로 문제의식이 생긴 대로 내가 답을 성취하기 위해서, '원로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충고를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로목사님에 대해서 느끼는 문제의식을 십자가에서 죽일 때, 정말 원로목사님이 문제라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예요.
근데 원로목사님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신다면, 그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십자가에 죽이고, 하나님께서 저분을 가시로 이용해서 뭔가 내 속에서 목회를 위해 필요한 자질을 기르시기 위해서 그러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업이 문제가 될 때, 사업 자체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답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답을 사업에서 이루려고 하지 말고, 사업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아버리고, 계속 사업에서 문제가 느껴진다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더 십자가에 매달려있는 시간을 길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부르시고 있구나!
사업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전부 식은 죽 먹기에요.
대통령 되는 것도, 사업이 번성하는 것도 식은 죽 먹기입니다.
목회에서 사람이 많아지는 것 하나님께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왜 그 따위 것을 바라고 계시느냐 이거에요.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제나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목회가 문제라고 여기는 그 문제의식 자체를 십자가에서 죽여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목회는 10년 동안 50명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꼭 기적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10년 동안 50명인 목회 현장의 목사님과 사모님에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사업이 안 되는 가운데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안 되는 사업을 앞에 놓고 웃는 사장님의 웃음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모든 문제의식의 순간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십자가를 받아들이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문제의식을 본질적 속성으로 삼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큰일 날 줄 알고, 개선이 없는 줄 알고, 창조와 발명이 없는 줄 알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창조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시므로, 답을 알고 계시므로 우리의 문제의식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